



동수강산

7

2025년

루게 제431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5 ISSN 1727—9062



표지: 새로 일떠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생태환경에서 제일가는 해안명소라고 할수 있는 갈마반도가 해안관광지구로 개벽되었다.

원산갈마지구에는 근 2만명 숙박능력의 호텔과 려관,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2 ||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경관을 펼친 동해기슭의 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8 || 종대사안

12 || 온실농장들사이의 경쟁열풍

일화

13 || 위민헌신의 나날에

승리와 영광의 80년

14 ||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5 || 도자공예 《여일중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6 || 보금자리

18 || 전승을 안아온 주체전법들

20 || 전후에 받으신 영웅메달

21 || 승리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다

22 || 높은 철강재증산으로

고향소식

24 || 지방발전의 새로운 령역이 개척된 고장

28 || 건구제작과 실내장식설계에서 소문난 단위



30 || 나라의 인구문제해결을 위하여

31 || 다섯쌍둥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생,
평양산원에서 퇴원

32 || 녀성공로자들

34 || 6살 난 바둑소년

36 || 수중체육계의 《검은말》 조진미

38 || 농촌진흥의 새봄을 형상한 TV연속극
《백학벌의 새봄》

민족의 향기

41 || 조선옷의 독특한 미 고름

42 || 단골손님이 많은 문흥단고기집

조국방문

44 || 소중한 추억

인상기

47 || 고귀한 칭호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47 || 동포들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48 || 약속

편지

49 || 보고싶은 삼촌에게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50 || 민족무용발전에 심신을 바쳐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2 || 심원사

55 || 고려초기의 석불상 발굴

력사이야기

56 || 고구려의 강성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경관을 펼친 동해기슭의 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조국의 아름다운 바다가정서로 유명한 갈마반도에 현대적인 해안관광지구가 완공되어 경사로운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예로부터 뛰어난 경관으로 널리 알려진 해안지대의 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각양각태의 현대미를 발산하는 수백동의 건물들이 완벽한 예술적호환성과 편결성을 이룬 원산갈마지구는 명실공히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관광도시이다.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의 래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수 있는 근 2만명 숙박능력의 호텔과 려관들이 자리잡고있는 관광지구에는 모든 조건을 원만히 구비한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있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조선동해명승의 진미를 안겨줄수 있는 문화생활기지들도 갖추어져있어 년년이 펼쳐질 인파시리를 장쾌히 그려주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6월 24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 군민건설자들, 시공 및 운영단위 일군, 종업원들, 강원도와 원산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총리동지는 생태환경에서 제일가는 해안명소라고 할수 있는 갈마반도가 우아하고 현대적인 새 모습으로 개벽되게 된것은 우리 당만이 펼칠수 있는 세기적인 전변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만들어올린 인민의 높은 존엄과 복리의 상징이라는 바로 여기에 이곳 해안관광지구의 진정한 의미와 특유의 멋이 있고 그 어느 관광명소도 올라설수 없는 숭고한 경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문화휴식터를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대건설을 당적,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 최상의 해양공원을 자기 힘으로 일떠세운것은 줄기찬 건설혁명으로 사람도 산천도 시대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부흥번

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세대의 값높은 영예이고 보람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령도의 기념비로 찬연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리동지는 불굴의 개척과 간고분투의 노력으로 갈마반도에 안아올린 경이적인 개벽상은 우리 국가와 인민이 만년을 누르며 반드시 올라서게 될 전면적부흥의 새로운 분수령을 가리키고있다고 하면서 모두다 당중앙이 제시한 진로따라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 우리 국가의 래일을 위하여 더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명사십리아외물놀이장, 갈마모란봉려관, 명사십리호텔을 비롯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황홀경의 대장관을 이룬 해안관광도시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가장 하고싶었던 일, 우리 당이 오래동안 공력을 들여온 숙원사업이 장쾌한 현실로 계속되었다고, 무궁무진한 우리의 개척정신이 다시한번 이 방대한 건설사업을 통하여 보란듯이 과시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지구의 모든 건축물들은 한해가 다르게 급속히 도약해온 우리 건축술의 원숙한 경지가 집대성된 기념비적창조물들이라고 하시면서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결짓는 올해의 가장 큰 성과들중의 하나로 기록될 경이적인 실체를 일떠세운데 대한 감개함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관광문화를 확립하는데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선도적역할을 감당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운영단위들에서 동해명승에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유쾌하고 만족한 나날을 보낼수 있도록 최상의 편의와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있으며 특유의 정치적안정성과 제도적공고성이 담보된 우리 나라에서 관광산업은 문화분야의 개화발전을 촉진하는것과 함께 해당지역의 진흥을 추동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장성에 이바지하는 동력으로서 커다란 전망적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리식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문화관광발전에 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을 실현하는 로정에서 자랑스러운 첫걸음이며 갈마반도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에 각이한 류형의 유망한 대규모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기간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하시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다.

개화만발하는 사회주의문명과 더불어 모든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통성시대의 약동과 미래에로 나래치는 희망, 끓어솟는 애국의 열정으로 충만된 명곡들과 황홀한 축포들로 하여 경축의 밤은 환희로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일어번질 행복의 파도가 조국의 금수강산 곡곡으로 뻗어갈 락원의 래일을 부르며 세계적인 관광문화휴양지로서의 매력적인 명함을 선양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가장 인민적인 국가발전관에 떠받들려 조선동해의 아름다운 백사장에 펼쳐진 문명의 천지개벽의 경관은 희망넘친 부흥의 새시대를 자신만만하게 열어나가는 우리 국가특유의 무진한 발전잠재력과 영용한 개척정신을 과시하며 세세년년 인민의 웃음을 꽃피우는 문화적재보로 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 * *



2019년 12월
중평온실농장 조업

2022년 10월
련포온실농장 준공

2024년 3월
강동종합온실농장
준공 및 조업

2025년 2월
신의주지구에서 450정보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
중심건설 착공



중대사안



최근 몇년어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한 온실농장들이 일떠섰다.

중평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 강동종합온실농장...
그 온실농장들과 더불어 강동남새, 련포남새,
중평남새라는 낱말들도 생겨난것은 물론 수도시민
들과 함경도인민들의 식탁에 사철 신선한 남새
가 오르고있다.

온실농장의 덕을 입을 때마다 조국인민들은
가슴을 들먹이곤 한다.

대규모의 온실농장건설, 이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중대사안이였다.

인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종
대국사로 내세우시고 억만금을 아낌없이 기울이
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에
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을 평
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함께 항상 마음속
에 중대사안으로 새겨두시고 무르익혀오시였다.

이에 따라 당과 정부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현
대적이고 실리있는 온실농장들을 대대적으로 건
설하여 인민들에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는것을 정책화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기후적조건으로 하여 남
새농사가 잘되지 않는 지역에서부터 대규모온실
농장건설을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19년에
북부지역인 함경북도에 중평온실농장을 일떠세
웠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공업도시이며 과학도시인
함경남도 함흥시와 도내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안에 대규모
의 련포온실농장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2022년
도 최종대건설정책과제로 책정하였으며 이것은
현실로 펼쳐졌다.

대규모의 온실농장들의 터전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온실농장들의 터전은 나라의 중요군사기지들
이 있던 곳이다. 처음 중평지구에서, 그다음은
련포지구에서 그리고 강동지구에서 나라의 중
요군사기지들이 철거되고 온실바다가 펼쳐졌다.

지나온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나라를 지키기



중평온실농장

위하여 부침땅을 군사기지로 쓴 레는 있어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군사기지를 부침땅으로 전환시킨 레는 찾아볼수 없다.

그것도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전쟁도발 책동들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시기에 인민을 위해 주저없이 군용비행장을 철거시킨것은 세상에 류레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대규모온실농장들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현대화수준도 더 높아지고있다.

2019년 12월에 완공된 중평온실농장은 당시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으로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되였다. 1 000m²의 반궁룡식2중박막온실 300동을 포함하여 총 320동의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이 특색있게 건설되였으며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수많은 공공건물, 생산건물

들도 일떠세웠다. 온실관리와 남새재배의 현대화수준 또한 높은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련포온실농장은 중평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두배이상에 달한다. 280정보의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이 일떠서고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여 이 지역은말그대로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로 전변되였다. 건설기간은 불과 23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4년 3월에는 련포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훨씬 크면서도 한세대 더 발전된 260여정보의 강동종합온실농장이 일떠서 사람들을 놀래웠다.



련포온실농장

하지만 지금은 세찬 강바람에 모래먼지만 날리던 신의주시 하단리와 의주군 서호리지역에 중평과 련포온실농장, 강동종합온실농장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큰 최대규모의 450정보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이 건설되고있다.

규모와 폭이 상상할수 없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온실농장들은 인민의 기쁨을 띠고여기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 낳은것이다.

그이께서는 농장들의 위치와 규모,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자재보장, 온실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적지선정을 위하여 중평리를 찾으시였던 그날 비행장구역안의 드넓은 대지를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일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이이시다.

그러시고는 도, 시, 군소재지인민들의 남새문제를 풀수만 있다면 비행장을 한개가 아니라 두개, 세개도 낼수 있다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중평온실농장이 웅장하게 일떠섰을 때에는 몸소 조업테프도 끌어주시고 지리적으로 멀고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멀고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남새온실농장이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런 마음으로 련포, 강동지구에 대규모온실농장의 실체를 현실로 떠올려주시고도 마음이 놓



강동종합온실농장

이지 않으시여 혹심한 큰물피해를 입었던 나라의 서북변에도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로고를 바쳐가고계신다.

정녕 인민을 국가의 근본이자 전부로 여기시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자신의 숙원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은 더 빨리, 더 훌륭하게 현실로 펼쳐질것이다.

글 임향심, 사진 김혁주, 조선중앙통신

위민천진의 나날에

민족음식에 깃든 다심한 사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7년 1월 어느날 류경김치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치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경영활동, 품질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으로 새해의 첫 대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경공업부에서 일어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인민들은 모든것이 유족하고 문명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 깊이 새겨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만족속에 돌아보신 멋쟁이공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년 1월 어느날 새로 일떠선 광천닭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광천닭공장이 당의 구상대로 나라의 가금업발전에서 새로운 기준점으로,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종전과는 대비할수 없는 새로운 개념과 방식, 높은 경지를 개척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자동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광천닭공장은 철두철미 우리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자부할만한 시대적본보기이며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백히 제시한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정상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치밀하게 조직하며 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시대의 발전기준, 본보기를 훌륭히 창조한 광천닭공장이 앞으로도 나라의 가금업과 지방공업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구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면시키시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5년 2월 어느날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착공식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방의 자연경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 따라 오늘 신포시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기지건설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자리도 자신께서 직접 고른 자리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면이 룽지로 안전하게 둘러막힌 이곳은 불리한 해양기상학적영향을 받지 않는 데다 부두와 방파제를 건설하기도 좋고 양식장으로부터의 거리 또한 매우 가까우며 수생동물자원과 해양생태학적환경도 우수하므로 양식사업소의 위치로는 정말 명당중의 명당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해안지대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까지 완벽하게 일떠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을 락원군에 선물하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의 요구와 권익을 옹호함에 더욱 투철하고 견결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착공식은 인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복무하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적립장을 재확인, 재천명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착공을 기념하여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다.

* * *

온실농장들사이의 경쟁 열풍

강동종합온실농장과 중평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에서는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온실남새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경쟁에서 주목되는것은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면적당 생산량을 늘이며 맛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있는것이다.

강동종합온실농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영양액의 류실을 방지하고 공급량을 기준수치에 맞게 정확히 보장할수 있는 부분품들을 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정보당수확고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남새품종들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한 이들은 환경 및 영양관리와 포기관리를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였으며 호동별로 남새의 생육상태에 맞게 작업조직을 세분화하였다.

그리하여 올해 햇남새가 귀하던 이른봄철에만도 배추, 부루, 진채를 비롯한 갖가지 신선한 남새를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온실남새생산의 담당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경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평온실농장에서는 남새생산에서 영양학적지표와 품종별남새의 고유한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기술기능제고와 선진기술도입에 분투하도록 추동해주고있다.

농장에서는 종업원들 누구나가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온실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작업반기술원들이 세계적인 남새생산기술을 습득, 도입하여 남새의 질을 높이고 량을 늘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련포온실농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농공정별, 작물별에 따르는 기술전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것이 남새생산을 늘이는데서 은이 나게 하고있다.

대규모온실농장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은 생산

과 경영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개선을 가져오게 하고있다.

련포온실농장에서는 해당 부문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온습도와 빛조절, 영양액공급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품종별특성에 맞게 자동조종하는 지능형통합생산체계를 수경온실에 도입하는 사업에도 계속 힘을 넣으면서 온실남새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대규모온실농장들에서는 월별, 분기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각 지역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경쟁과정에 끊임없이 창조되는 우수한 성과와 경험은 단위들사이에 서로 교환공유되어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고있다.

글 연옥, 사진 김영호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당

80성상에 걸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힘, 사상의 힘이 사회의 발전과 변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과시한 자랑찬 년대기이다.

시대와 력사는 위대한 사상과 그 사상에 공감되고 단결된 인민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변혁되고 추동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며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당이 견지해야 할 조직로선의 중요내용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 발동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사상사업은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를 거쳐 수십년세월 모든 사업의 주선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소한 공화국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짓부시고 전승의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그리고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속에서 전설속의 천리마가 솟구쳐올랐으며 남들이 수백년이 걸려서야 이룩하였다고 하던 공업화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었다.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당사상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등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정치사상강국의 터전을 닦고 그 기둥을 역세계 세워오시였다. 하여 당사상사업전반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일관한 원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사상사업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사상사업의 된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그이께서는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였다고,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언제인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가슴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못잊을 그날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철주야로 헤쳐가신 현지도자육은 우리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욱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계 자라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속에서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 발전소언제를 쌓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첨단기계설비들을 수많은 개발, 제작한 과학자들과 로동계급,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도전을 산산이 짓부시며 려명거리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송화거리와 화성거리 등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건설자들...

이처럼 조선로동당은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위협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다.

글 김지성

도자공예 《여일중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충동포 김호운이 드린 선물

2017년 1월

보금 자리

(전호에서 계속)

우리의 길안내를 담당했던 전각루의 반일회원과 적구에서 온 연락원은 나의 처사가 미타해서인지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리웅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거리었다.

나는 그에게 귀속말로 던지시 물었다.

《아까 행군을 해오면서 보니까 요영구어귀의 앞뒤고지들이 묘하게 생겼는데 싸움을 거기서 벌리면 어떻겠소? 그앞으로 자동차길이 나 있지?》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리웅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북구 서산말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싸움을 해볼만한 금성탕이지요.》

나와 리웅걸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얼마후 우리는 요영구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대북구 서산으로 올라갔다. 적위대장과 전각루에서 온 반일회원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서산남쪽은 절벽이었는데 바로 그밑으로 자동차길이 나있었다. 자동차길과 평행으로 뻗은 강을 소통구라고 불렀다. 서산고지에는 바위돌들이 많았다. 그 바위돌들은 유격대가 의지하여 싸울수 있는 훌륭한 천연방어축성물들이었다.

우리는 벼랑과 벼랑사이에 여러개의 돌무지를 쌓아놓은 다음 요영구적위대병력과 우리 부대 대원전원, 별동대의 일부 성원들을 모두 서산으로 불러올리었다. 그리고는 언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게 하고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가 차지하고있는 이런 곳을 선조들은 금성탕지라고 하였다. 방비가 철통같이 튼튼한 성지라는 뜻이다. 공격자에게 불리한 곳이지만 방어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명당인가. 그러나 금성탕지도 좋지만 나는 동무들의 숨씨를 더 믿는다. 동무들, 참변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몇백배로 받아내자! 피는 피로써!

나의 전투명령은 이런 선동연설로 끝났다.

그날 4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요영구골안으로 쳐들어오던 80여명의 일본군은 우리의 매복전술에 걸려들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대흥구의 일본수비대는 다음날도 있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요영구로 쳐들어왔으나 무리죽음을 내고 도주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간도지방의 유격구역에 와서 우리가 치른 첫 전투였다. 력사책에는 아마 요영구유격구방위전투라고 기록되어있을것이다.

다음날 저녁 요영구사람들은 대북구마을에서 전투승리를 기념하는 경축행사를 조직하였다. 이 행사가 지금도 내 인상에 남아있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명씩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며 축하연설을 하였는데 그 열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도 물론 그날 밤 격조높은 연설을 하였다.

내가 요영구에서 오진우를 만난것이 아마 그해 겨울이던지 그 전해 가을일것이다. 그때 소북구 마을인민들은 오진우가 아동단지도원으로 활동

하고있던 아동단학교에서 우리에게 대한 환영회를 열었다.

오진우는 그 환영회때 내가 38식보총을 짊고 연설하던 광경이 제일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나와 처음으로 상봉하던 때를 종종 감회깊이 회상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인가 16살쯤 되었던것 같다. 그때 그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 싸창을 자꾸 만져보았다. 총이 몹시 탐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휴대하고있는 무기는 모두가 38식보총이 아니면 성능이 높은 최신식권총들이었다.

나는 오진우에게 유격대에 들고싶은가고 물었다.

그는 들고싶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다음해였던지 그 다음해인지 그를 왕청4중대에 받아들이고 북만원정에도 참가시키였다.

우리가 요영구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유격구의 당사업과 군중단체들의 사업까지 료해하고나서 소왕청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있을 때 마침 그곳에서 중요한 군사문제를 두고 상론할 일이 있으니 마촌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별이 왔다.

우리는 인차 요영구를 떠났다.

우리가 소왕청에 도착하였을 때 나를 맞이한것은 왕윤성과 그밖의 다른 두사람이었다. 왕윤성을 일명 마영이라고도 하였는데 사람들은 본명보다도 그를 《왕다노대》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다. 《왕다노대》란 머리가 유별나게 크다는 뜻이다.

나는 《따거우재》를 비롯한 유격구간부들의 안내로 마촌북쪽 산기슭에 있는 리치백로인네 집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동만당대표들을 만났다. 《따거우재》란 리용국의 별명인데 키꺼다리라는 뜻이다. 그 당시 그는 왕청현당에서 서기로 활동하고있었다. 마촌에 《류동객장소》라고 부르는 독신자들의 합숙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많고 번잡하여 머무를 곳이 못된다고 하면서 소왕청사람들은 나를 한사코 리치백로인네 집에 있게 하였다. 리치백은 김중권의 장인되는분이였다. 그 로인의 부인을 서성녀라고 하였다.

리치백로인네 가정은 온 일가가 혁명을 하는 애국적인 가정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다부산자를 입고 왕윤성일행과 담화를 하였다.

《왕청입성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왕다노대》의 첫 인사말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틀어잡고 반갑게 답례하였다. 왕청과 같이 서름서름한 고장에 와서 왕윤성과 같은 구면의 혁명가를 만난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내가 《왕다노대》를 맨처음으로 만난것은 남만진출을 끝내고 안도에 돌아와 반일부대와 사업에 부심하고있던 때였다. 그때 왕윤성은 진한장과 함께 맹탄장부대에서 구국군공작을 하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전승을 안아온 주체전법들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군사전문가들은 지금도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이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섰다는 그자체가 하나의 군사적기적이 아닐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하다면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그 기적은 어떻게 이룩된 것인가. 그것은 결코 그 어떤 우연이나 하늘이 준 선사품이 아니었다.

비결은 세계전쟁사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탁월한 령군술로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령도에 있었다.

전쟁은 적아간의 힘의 대결인 동시에 군사전법과 령군술의 대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전 기간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

와 그 발전추이,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적의 행동성격, 적들의 약점과 전선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싸움에 적용할 독창적인 전법들을 제시하시였다.

이 전법들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고 현대전쟁의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독창적이고 완성된 전법으로 특징지어진다.

우회포위전, 침입전, 진지방어전, 갱도전, 기동타격전, 공군매복전, 저격수조활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이동포병중대(박격포병소대)활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적후파괴조활동, 습격조활동 등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가장 대표적인 주체전법들이다.

갱도전법만 놓고보아도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과 기술적우세에 의존하고있는 적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적의 현대적무기의 타격으로부터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적은 무기로 기술적우세를 격파하고 차지한 방어선을 철저히 지켜내게 하는 위력한 전

법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1211고지방위전투의 승리는 다름아닌 갱도전법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였다.

땅크사냥군조운동도 우리 식의 독창적인 땅크소탕전법이였다.

전쟁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사람들은 최신식장비를 갖춘 적땅크와의 투쟁은 오직 위력한 반땅크포와 비행대 그리고 그와 대등한 땅크로써 진행하거나 최악의 경우 돌격해오는 적땅크를 반땅크수류탄이나 인화병으로만 파괴할수 있다고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논밭이 많고 습지대가 있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로를 끼고 들어오는 적의 선두땅크만 사냥하면 적땅크들의 전반적인 기동력을 저해할수 있었고 이 묘술을 반영한것이 땅크사냥군조운동이였다.

땅크사냥군조에 망라된 인민군전사들은 전선에서뿐 아니라 적후방중심에까지 들어가 지뢰와 반땅크수류탄으로 적땅크와 장갑차를 수없이 소멸하였으며 이 과정에 적땅크를 7대나 까부신 공화국영웅 석봉건용사를 비롯하여 많은 군인들이 놀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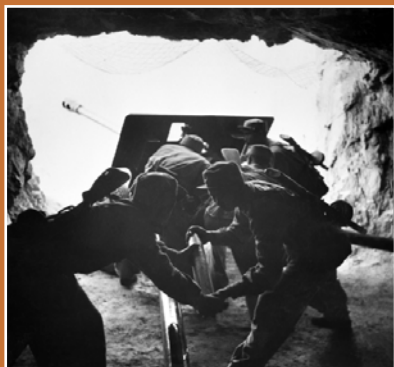
위훈을 세웠다.

이밖에도 중기관총과 같은 저격무기로 현대적인 적비행기들을 쏘멸한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이 운동이 시작되어 두해동안에 근 3 000대의 적기를 격추하였다.)과 1952년 한해동안에만도 1만 6 890여명의 적장병들을 소멸한 저격수조활동, 1952년 한해동안에 5 300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30여대의 땅크와 200여개의 적화점을 파괴한 이동포병중대활동 등은 실로 기성의 군사지식과 공식으로써는 풀이할수 없는 주체적이고 독창적인것들이였다.

하기에 당시 조선전쟁을 직접 목격한 외국의 한 기자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전략과 전법들은 현대전의 능수라고 하는 유럽의 군사가, 아메리카의 작전가들이 생각지 못하는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한것으로서 오직 풍부한 빨찌산시절을 체험하시고 모든것을 인민과 전사들에게 의거하시는 그이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전략과 전법들이였다.》

글 김성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갱도전, 땅크사냥군조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 이동포병중대활동과 같은 전법들은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전후에 받으신 영웅메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여받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메달과 영웅증서,
훈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여받으신 영웅증서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 1953년 7월 28일 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해드리었다.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조국해방전쟁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전쟁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600여명의 영웅들속에는 공화국2중영웅만도 5명이나 된다.

둘이켜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는 미제가 도발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한지 5일 만인 1950년 6월 30일에 제정되었다.

1950년 7월 15일에는 전쟁의 첫 시기에 특출한 위훈을 세운 10여명의 군관, 병사들에게 이 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그들중에는 미제침략군과 처음으로 대결한 오산전투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제4보병사단 제18보병련대의 련대장 리훈,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키는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제2어뢰정대의 지휘관 김군옥과 리완근, 《하늘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의 폭격기 《B-29》를 격추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의 용맹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친 비행사 리문순과 김기옥 등이 있다.

이들이 영웅으로 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이 낳은 첫 영웅인 김승운은 자기의 수기에 20여일동안 적기 5대를 격추시킬수 있는것은 평범한 전사에게도 담력과 슬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였기때문이라고 썼다.

진정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였기에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할수 있었다.

이런 날이 흐르고 합쳐져 전승의 7.27이 밝아왔고 수많은 참전자들이 가슴에 금별메달과 훈장들을 번쩍이며 전승의 날을 맞이하였다.

사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절세의 애국자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이께 영웅칭호를 수여해드릴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바랐다.

인민의 소원은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날에야 성취될수 있었다.

청소한 공화국을 《유일초대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호히 맞서 승리를 쟁취한 영웅조선으로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영웅중의 영웅,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글 김일봉

승리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다

세월은 류수같이 흘러 애젊은 20대의 나이에 불비쏟아지는 격전장을 누비며 적들을 쳐부시던 나도 이제는 아흔살을 훨씬 넘긴 고령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삭막해지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생생히 떠오르는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이 간직되어있다.

그때가 바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였던 1950년 10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미제침략자들은 수십만의 병력과 수천문의 포, 수백대의 탱크와 천여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들을 동원하여 력량상 현저한 우세를 조성하고 전선에서 공격에로 넘어오는것과 함께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면서 전쟁에서의 《속전속결》을 떠들며 저들의 승리가 시간문제라고 내놓고 세계에 광고하고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앞서 떠나간 련대를 찾아 밤낮없이 행군길을 재촉하던 한개 소대가량의 우리일행은 창성군 유평리일대에서 잠시 휴식하게 되었다.

길지 않은 휴식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조국보위의 노래》를 부르고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계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날 우리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이 어려운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어려운 때일수록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난다는 우리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척 대견해하시며 미제침략자들이 청천강을 넘어 밀려드는 이때 동무들이 노래를 부르고 《백두산》시를 읊는것을 들으니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에게는 당이 있고 조국

이 있고 인민군대가 있으며 자기 조국의 귀중함을 잘 알고있는 인민이 있다고,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이 맥맥히 흘러넘치는 강철의 령장의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생의 활력소마냥 흘러들었다.

명장의 담력과 배짱, 신념은 곧 병사들의 신념과 의지로 이어진다.

나는 이것을 가릴처절한 전투마당들에서 온넋으로 체험하였다.

한강도하를 기도하는 적들을 삼대배듯 끌어높히고 공화국영웅이 된 윤창흡, 끊어진 통신선을 자기의 몸으로 잇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채 꽃나이청춘을 바친 통신소대의 녀병사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무명의 인민군용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올린 신념의 웨침은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1950년대 조국결사수호정신의 체현자들이 지니였던 절대불변의 신념이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불리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이 짝 차있었기때문이다.

전화의 그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거창한 창조와 비약의 길을 따라 우리 조국이 걸어온 자욱자욱은 위대한 령장이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걸음걸음 확증하였다.

나는 오늘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또 한분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승리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라고.

전쟁로병 한동수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증산운동이 고조되고있다.

매일 철강재생산목표 1. 7배로 넘쳐 수행, 산소열법용광로계통별보수 단 12시간동안에 결속, 압연강재생산에서 최고실적 기록...

이것은 최근시기 이곳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이다.

지난해에는 한기의 용광로에서 하루 수십t의 쇳물을 더 생산해도 큰 성과로 보던 이들이 올해에 들어와 하루 100t이상의 쇳물을 더 뽑아내고도 성차하지 않고있다.

생산장성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련합기업소가 증산의 기본열쇠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대증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데 있다.

년초부터 용해공들과 기술자들은 로의 용해시간을 더 줄일방도가 없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생산력을 더 올리자면 뭐니 뭐니해도 용해시간을 단축해야 하였다.

이렇게 고심하던 끝에 용해공들은 용해시간을 줄이면서도 많은 연료를 절약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찾아내게 되었다.

용해공들과 기술자들은 매일로에 장입하는 연료의 기술적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로조작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결국 주당차지수는 늘어나고 하루생산량은 종전보다 훨씬 올라갈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로의 밑부분을 개조하여 쇳물생산량을 더 늘일 대담한 착상을 하고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백수십℃로 달아오른 슬라크를 제거하고 로축조를 다시 해야 하는 기술개조사업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용해공들은 이들이 걸려야 한다는 기성관례를 깨고 12시간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질제고는 철강재생산의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지난 시기 련합기업소는 새

로운 쇳물정련체계를 확립하고 탈류효과를 높이는 등 쇳물의 질, 강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방식의 탈류공정을 확립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집단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완강히 노력하여 끝내는 선진기술에 의한 우리 식의 새로운 탈류공정을 일떠세웠고 시험생산에서도 단번성공하였다. 력이어 새로운 방식의 정련공정을 또다시 확립하여 철강재의 질제고에서 또 한번 전진의 보폭을 내질게 되었다.

어제날의 성과에 자만한다면 그것은 곧 침체와 담보를 의미한다는것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이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전원회의의 과업관철을 위한 쇳물생산에서 최고의 수준을 계속 돌파하기 위하여 부단히 사색하고 완강하게 노력하고 있다.

글 강소현

-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



증산으로
철강재



고향소식

지방발전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된 고장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찾아서 -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하여 날에 날마다 새로운 전변이 이룩되는 고향의 소식을 기다리고있을 동포들을 위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리수남동포의 고향인 함경남도 신포시로 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요물고기산지로 알려진 신포시에 얼마전에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 까지 일떠선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찾았다.

훌륭히 꾸려진 밥조개가공장이며 초급동실, 종합 지휘실도 그러하지만 양식모선과 양식배, 잠수 배들이 줄지어늘어선 부두 또한 장관이였다.

앞으로 이곳의 양식사업소에서 나오는 생산물 로 해서 신포시민민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될것 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우리가 사업소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한철수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사업소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의해 일떠선 인민을 위한 창조물입니다.》



종합지휘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형적인 해안지역이며 주민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 신포시를 시범단위로 정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추진시켜오신 사실에 대하여 감회깊이 들려주었다. 무려 3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어 모든 대상을 실리에 맞게, 인민의 리익에 맞게 완공할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하신 이야기이며 기능공력량을 더 증강해주신 사실들은 걱정없이 들을수 없는것들이었다.

이어 우리는 부두에 정박해있는 양식선 810270호에 올랐다. 잠시후 10여척의 양식선들이 일제히 바다가양식장으로 출항하였다.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바다에서 바라보는 사업소의 전경은 숲속에 들어앉은 휴양소를 연상케 하였다.

양식장은 룽지로부터 3mile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100정보나 되게 꾸려진 밥조개, 다시마양식장은 수질, 바다물온도를 비롯한 바다생태환경조건이 좋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수역이었다.

양식3작업반장 한병록은 계절과 온도에 따르는 드레의 물층깊이조절, 감탕털어주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밥조개의 생존률을 최대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양식공들은 밥조개생육상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밥조개들이 커가는데 맞게 태장의 부력

을 높여주기 위한 떼달기를 제때에 해주어 드레의 물층깊이를 알맞게 보장하고있었다.

들어올린 드레의 밥조개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병록은 지금 밥조개의 생육상태가 좋은데 12월이면 50정보의 밥조개양식장에서 수백t의 밥조개를 수확할수 있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만이 아닌 흥에 겨워 일손을 다그치는 양식공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저절로 노래 《바다 만 풍가》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조사선에도 올라보았다. 조사선에서는 연구사와 분석원들이 밥조개와 다시마의 생육상태는 물론 바다물온도, 맑음도, 자연먹이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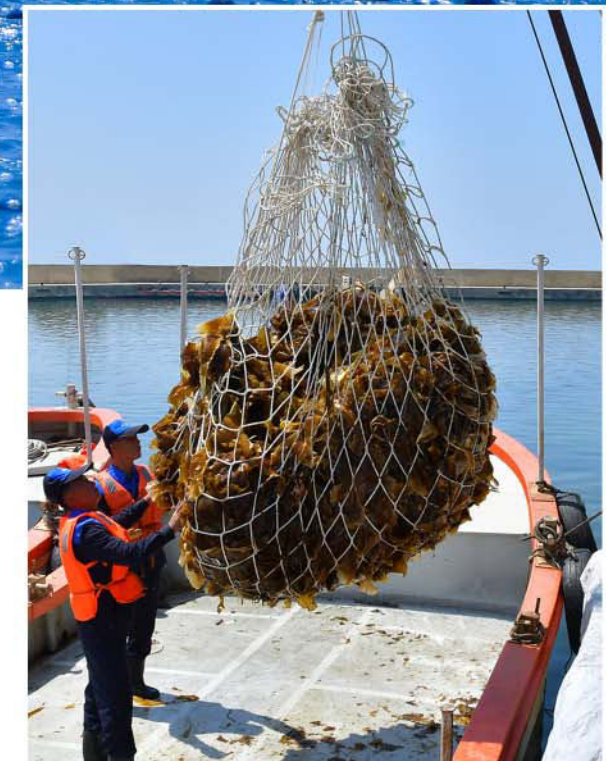
분석원 전유정은 조선동해는 오염이 없으며 해양생물들이 정말 풍부하다고 하면서 바다에 나올때면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사랑의 감정이 가슴에 넘쳐난다고 하였다.

그들과 함께 룽지로 돌아온 우리는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현대적인 정보체계를 리용하여 양식장과 배양장, 가공장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을 비롯한 사업소의 전반활동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다는 종합지휘실 리현명의 이야기도 그러하지만 가공장들에 밥조개세척기 등 능률



밥조개를 수확하고있는 양식공들



사업소에서는 지난 5월 준공후 첫 다시마수확을 하였다.

높은 설비들이 설치되어 품이 많이 가던 수산물가공을 이제는 손쉽게 하게 되었다고 가공작업반 윤명숙의 꾸밈없는 말에는 일터에 대한 애착과 함께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해갈 마음들이 담겨져있었다.

그 마음들을 읽어보느라니 지난해 12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찾으시어 전망성이 확고한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완공으로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영역이 또 하나 개척되었다

고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

력대 굴지의 어장도시로 유명했던 이 고장이 자기의 명성을 다시금 높이 떨치게 될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신포시를 떠났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리철진



건구제작과 실내장식설계에서 소문난 단위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대송무역회사 세거리모란건구제작소는 건물내부장식과 각종 건구, 가구들을 전문으로 제작하고있는 단위이다.

개업한지 10년가까운 기간에 수백채의 살림집과 수십채의 공공건물들의 실내장식을 맡아한 제작소는 사람들속에 능력있는 제작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제작소는 설계원들과 시공, 목공 그리고 관리일꾼들까지 30명밖에 안되는 크지 않은 단위이다.

그러나 오늘 제작소는 건축내부장식과 가구제작기술에서 큰 단위와 견줄만큼 실력이 높아졌다.

설계와 시공, 제작공정이 하나로 일체화되어있는 제작소는 손님들의 각이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데로 자기 사업을 지향시

켜나가고있다.

설장 김영호는 《날로 발전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사람들의 미학관도 계속 높아가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손님들의 수요를 제때에 장악하고 설계에 반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설계원들은 실내장식과 관련한 세계적인 건축추세자료들을 우리 식에 맞게 받아들이고 부단히 갱신하여 형성안에 반영하고있다.

손님들이 실내장식형성안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점은 실용성과 기능성이 담보된 각종 기능성가구들을 제작하고 구색이 맞게 배치하여 장식효과를

보다 높이고있는것이다. 색과 형태, 재질 등 모든 요소들이 전반적인 실내장식과 잘 어울려 하나의 조화를 이룬 가구들은 수입산에 비해 수요가 높다.

《모르면 자료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한번도 보지 않고 스쳐지나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의 신, 하나의 점에서 새로운 착상을 잡을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실력가라고 할수 있다. 열심히 보고 부단히 사색하라.》

이것은 리영준소장이 설계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다.

설계원들은 건축설계뿐 아니라 미술과 음악 등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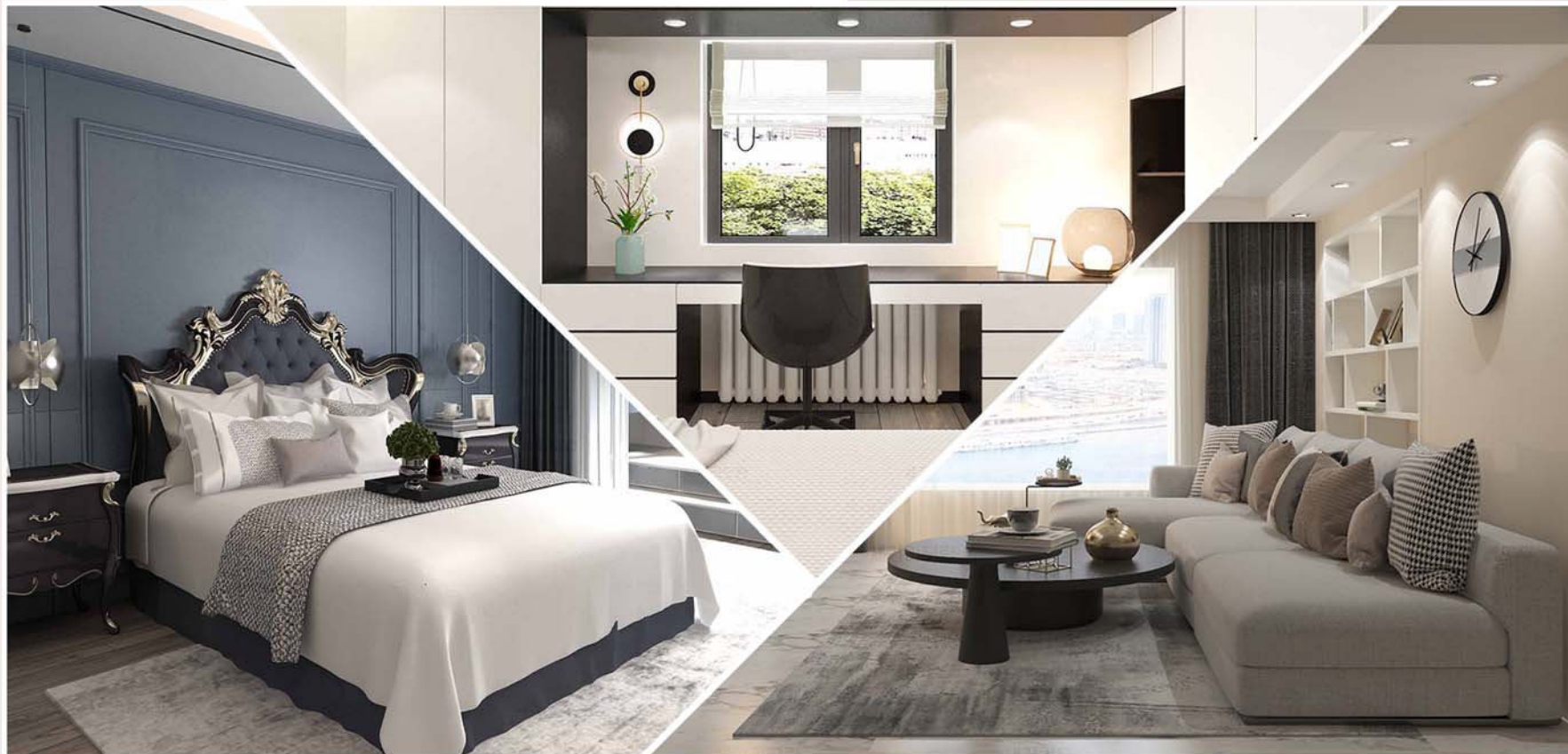
로 제품의 전반적인 내부장식의 양상을 새롭고 독특하게 설계하는데 이바지되고있다.

제작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이것은 단위의 기술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현재 제작소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자동조종체계가 도입된 지능형살림집내부장식설계를 비롯하여 높아가는 손님들의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제작소에서 설계한 살림집내부도안들





나라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실장 양성일과 기자와의 문답

현시기 인구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세계인구의 날인 7월 11일을 맞으며 기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가 진행하고있는 사업들을 알고싶어 양성일실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질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의 사명은 무엇인가?

대답: 1985년 7월 11일에 창립된 우리 연구소는 올해 창립 40돐과 함께 우리 나라가 유엔 인구기금에 가입한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연구소는 나라의 인구 및 재생산건강정책의 작성과 집행을 과학적으로 안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인구 및 재생산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적인 계획작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과 인구정보와 연구결과들을 국가기관들과 대중에게 보급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질문: 연구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있는가?

대답: 연구소에는 보건연구실, 통계연구실, 통보실, 대외교류실 등이 있다.

연구소에서는 신문 《인구소식》과 잡지 《인구연구소 학보》의 발간과 여러가지 선전물을 통한 보급사업도 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신문 《인구소식》은 분기간행물로서 인구학상식들과 국내 및 국제인구소식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인구관련소식들을 소개하며 학보는 인구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한 학술논문들을 발표하는 인구학잡지이다. 이외에도 여성들의 재생산건강과 관련한 선전물들도 제작하여 보급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출생률과 노동력의 변화추이와 앞으로의 전망,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경제적후과 등을 연구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지속적발전을 위한 인구구조대책들을 찾아 해당 기관들에 건의하고있다.

특히 출생률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장려하고 다자녀세대들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자식을 3명이상 낳아 키우는 다자녀세대들에게 지출하는 특별보조금을 실지 생활에 도움이 되게 정하고 상업, 편의봉사, 교육, 보건 등 여러 부문들에서 다자녀세대우대조치들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연구소에서는 《국가재생산

건강활동계획 2017-2023》의 리행상태에 대한 평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인구 및 재생산건강과 관련한 여러가지 도서들도 출판보급하였다.

이외에 보건성, 평양산원과의 협력하에 보건일군강습과 각 도산원, 시, 군병원들의 산부인과 의료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질문: 올해 계획한 사업들은 무엇인가?

대답: 우선 올해에 보건성과 협력하여 《국가재생산건강활동계획 2026-2030》을 작성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연구소창립 40돐기념 인구학논문집》과 소책자 《인구와 사회경제발전참고자료》를 집필, 출판하여 배포하는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 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상태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사업, 인구의 장애물에 대한 평가사업, 도시 및 산업설계사업 등을 심도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이렇게 연구소가 진행하고있는 모든 활동들은 우리 나라의 인구 및 재생산건강상태를 개선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있다.

다섯 쌍둥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생,
평양산원에서 퇴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지난 6월 19일 평양산원에서 퇴원하였다. 평양산원이 일떠선 때로부터 45돐이 되는 올해 1월 31일에 태어난 다섯쌍둥이(딸, 아들, 딸, 아들, 딸)의 어머니는 모란봉구역 장현동 76인민반에서 사는 박경심녀성이며 아버지 손충효는 평양상업봉사대학 학생이다.

지난 1월 다태자임신부로 확진된 즉시 산원으로 긴급후송된 녀성은 의료집단의 각별한 관심속에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임신유지치료를 비롯한 최상의 의료상방조를 받았으며 무사히 애기들을 낳았다.

출생당시 몸무게와 영양상태, 면역력 등 전반지표가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갓난아이합병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아기들과 산모를 위해 산원에서는 다섯쌍둥이치료조, 산모치료조, 보조진단검사조, 약물보장조 등을 긴급히 조직하고 소생치료를 하였다.

산원의료집단의 노력속에 애기들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산모의 건강도 회복되었다.

보육기에서 무럭무럭 자란 애기들의 몸무게는 퇴원할 당시 모두 4. 7kg이상이며 넷째(아들)는 6. 48kg이나 된다.

건강한 몸으로 평양산원을 나서는 산모와 다섯쌍둥이를 산원의 의사, 간호원들이 뜨겁게 배려해주었다.



여성공로자들

평양의 호화주택이라고 불리우는 경루동에는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공로자들이 살고있다.

그들중에는 남자들과 어깨나란히 사회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여성들도 있다.



조길녀(오른쪽에서부터 두번째)



림현단(오른쪽에서부터 첫번째)

경루동 1인민반 1현관 2층 2호 문패에는 조길녀라는 이름이 써있다.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 반장인 그는 20여년세월 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도로의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를 다 바쳐가고있다.

인민반장을 하던 조길녀가 자진하여 도로관리공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때 그는 《물론 인민반장 사업을 잘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의 청년들이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가고있는데 가정부인인 우리도 마땅히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해야 한다고 본

다. 그래서 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일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부문인 도로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인민반의 여러명의 여성들도 따라나섰다.

초심을 잃지 않고 조길녀반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업반이 담당한 도로를 깨끗이 관리하는것은 물론 태양빛도로청소기, 태양빛오물운반차들도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리용하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는 그를 평천구역안의 주민들은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였다.

선거장을 찾았던 외국기자들은 그에게 련이어 질문을 들이댔다.

도로관리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혹시 제2, 제3의 직업은 아닌가, 대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얼마만한 액수의 돈을 투자했는가, 살림집평방수는 얼마인가. ...

조길녀반장은 그때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나는 도로관리공이다, 우리 나라에는 제2, 제3의 직업이 없다, 나라에서 매번 살림집을 무상으로 주어서 집걱정을 모르고 큰집에서 살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리라고는 나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외국기자들은 특별한것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조길녀녀성에게서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호화주택에서 두 아들과 며느리들, 손자, 손녀를 거느린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만 그의 일과는 오늘도 변함이 없다.

조길녀녀성만이 아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외과 과장 림현단도 온 나라가 다 아는 공로자이다.

림현단의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진것은 2014년이였다.

그때 그는 8년세월 정성을 기울여 화상으로 눈까풀과 입술, 코가 다 타버리고 볼이며 턱 등이 숯덩어리처럼 되어버린 산골군의 한 처녀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되찾아준것으로 하여 신문과 방송에 널리 소개되었다.

2006년 병원에 온 산골군의 처녀(림송미)를 처음 보았을 때 림현단은 치료불가능, 회복불가능이라는 압박에 찾을수 없었다. 하지만 19살 나이에 거울 한번 못보고 살아야만 하는 처녀의 마음속아픔을 읽고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애젊은 처녀를 자기 딸처럼 여기고 장기성을 띠는 치료의 하루하루에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질감이 좋은 우점을 가지고있는 연부조직확장에 의한 성형수술방법에 전념하였다.

그의 탐구, 정열에 의해 연부조직확장에 의한 성형수술방법이 개척되었으며 100여차의 크고작은 수술에 도입되게 되었

다. 그는 한건한건의 수술을 의사로서의 책임감만이 아니라 혈육의 심정에서 하였고 수술후에는 환자의 몸보신에 좋은 음식들을 해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이런 나날속에 환자는 아름다운 얼굴과 함께 생의 희열을 되찾게 되었으며 퇴원후에는 두 자식의 어머니로도 되었다.

근 40년간의 림상치료기간에 이 처녀만이 아닌 수많은 환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생의 희열을 안겨준 림현단은 2.16 과학기술상수상자, 공훈의사, 박사, 부교수로 되었다.

지금도 명절날과 림현단의

생일날에는 그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나이와 직무는 서로 달라도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공로자들이 있어 조국은 더 부강하고 더 번영하는것이다.

하기에 남녀평등권법령발포 기념일을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6살 난 비특소녀

지난해에 진행된 가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와 전국교육부문 바둑경기-2024 등에서 박웅희는 매년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특히 전국어린이바둑경기에 참가한 박웅희는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여자개인경기에서 8전6승의 성적을 기록하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여자복식경기에서도 높은 성

적을 쟁취하였다. 웅희는 바둑을 배운 기간이 짧고 나이는 어리지만 수읽기가 정확하고 엉뚱한 수를 잘 써 예상밖의 결과를 낳고있다. 5살 잡이 소녀라고 별치않게 생각하며 접어들었던 상대선수들은 웅희의 수에 걸려 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웅희는 4살때 바둑을 배우기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유치원 박웅희어린이를 두고 사람들은 바둑신동이라고 부른다.



시작하였다.

어머니인 한소설녀성의 말에 의하면 웅희는 말을 떼기 시작해서부터 사물현상을 무심히 대하지 않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였으며 3살때에는 특별히 셈 세기를 배워준적이 없었어도 두 자리, 세자리까지의 수를 거침없이 읽어나갔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일종의 욕심도 가지게 해주었다.

부모들은 딸의 지능을 더욱 계발시켜주기 위해 유치원교양원들과 토의한 끝에 바둑소조에 보내었다.

웅희의 어머니는 《너무나 어린 딸을 바둑판에 마주앉힌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칭구와 동네어른들의 혼신도 없지 않았다. 사실 그때 부모의 욕망이 자식에게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것이었다.》라고 회억하였다.

웅희는 인차 바둑과 친숙해졌으며 바둑수품이도 잘하여 교양원을 놀래웠다. 바둑교육과정에 웅희의 지능지수가 뛰어 나다는것을 확신한 김수련교양

원은 5살밖에 안되는 그를 대담하게 경기에 참가시켰다.

수련교양원의 판단은 실천에서 검증되었다.

다른 처녀애들같으면 같은 또래라고 해도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많은 학부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기여서 수집어하거나 어려워하기가 일쑤이겠지만 웅희는 주위 환경에 개의치 않고 용의주도하게 경기를 운영해나갔다. 예상을 뒤집고 순위권에 입선한 웅희는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의 시야에 들었고 그후에 출전한 모든 경기들에서 매년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조선바둑협회 서기장 리봉일은 《웅희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수와 수를 거루는 바둑경기에서 5살 난 어린이가 보여준 성적은 놀랍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가 없다. 그의 앞날이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바둑을 배우면서 웅희는 우리 말과 셈세기공부는 물론 그림그리기와 서예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어 가정과 유치원의 보배로, 재간둥이로 사랑을



어린 바둑경기에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낸 박웅희어린이는 시애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받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에서 웅희는 더욱 세련된 바둑술을 보여주어 또다시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유모아

진짜사내

한 동리에 글뽀주가 살고있었는데 어느날 그의 이웃집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웃집아주머니는 글뽀주에게 《이보라구, 빨리 우리 주인을 좀 찾아달라구. 집에 불이 났다고 빨리 알려달라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자 글뽀주는 옷매무시를 바로하더니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는것이였다. 잠시후 글뽀주는 장기를 두고있는 이웃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는 숨을 죽여가며 슬며시 다가가서는 장기를 구경하기 시작하

였다. 시간이 펍 지나서야 장기가 끝났다.

이웃은 글뽀주를 발견하자 급히 물었다.

《여보게, 날 찾으러 왔나?》

《예, 한가지 여쭈 말씀이 있사온데 귀 댁에 불이 일었소이다!》

그 말을 들은 이웃은 펍쩍 뛰면서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나?》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글뽀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을 가라앉히소이다.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장기 구경하면서 말하지 말아야 진짜사내라고 하였거늘 제가 어찌 감히...》

* * *



수중체육계의 《점은말》 조진미

크지 않은 키에 사내들처럼 짧게 깎은 머리칼, 생글생글 웃는 얼굴표정, 이것은 우리가 만난 소백수선수단 물에뛰어들기선수 조진미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조진미는 2019년 국제수영련맹 물에뛰어들기 세계대회에서 여자 10m고정판 동시경기

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 동시경기에서 완전무결한 동작을 보여주어 신비로운 선수로 불리우고있다.

그의 고향인 평안남도 순천시의 마을사람들은 진미의 경기소식을 듣고 언제 봐야 조용하던 처녀애가 우승의 메달을 안아왔다고 자못 놀라워하였다.

진미는 처음 예술체조를 지망하였다.

평범한 노동자들인 그의 부모는 딸이 예술체조를 배우는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때 우리 둘째딸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가 예술체조를 해서라도 자립적이고 튼튼해지기를 원했습니

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진미는 매일 공부가 끝나면 예술체조훈련을 열심히 하였다.

날이 흐를수록 우아한 동작을 손색없이 펼쳐보인 진미는 그후 물에뛰어들기감독의 시야에 들어 평양의 어느한 체육단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체육단에서 기초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그는 2016년에 진행된 첫 국내경기인 인민체육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여 선을 보였다.

그후 진미는 국가종합팀 선수로 선발되었다.

인민체육인 신정림감독은 《진미는 늘 정숙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는 단 한번도 훈련에 빠진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신정림감독은 몸이 가볍고 퍼기점이 정확한 진미가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 정확한 입수동작을 진행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그후 진미는 2019년 국제수영

련맹 물에뛰어들기 세계대회에서 여자 10m고정판 동시경기과 혼성 10m고정판경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그해에 진행된 제8차 아시아컵물에뛰어들기경기대회 여자 10m고정판경기에서도 우승하여 상승궤도를 이어갔다.

신진선수로서는 놀랄만한 급속한 발전과 성과, 그에 따르는 축하의 꽃다발은 진미로 하여금 자만감에 도취되게 하였고 이것은 그의 육체기술적지표의 하강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다나니 그 이후에 진행된 국내경기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지 못한 수치를 뼈저리게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진미의 마음속에서는 동요가 일었고 그는 자기의 육체적극한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신정림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국향선수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체육인의 극한점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고 엄하게 질책하였다.

감독의 진정어린 질책은 진미로 하여금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고 조약과 회전속도, 입수물잡기가 좋은 장점을 적극 살리면서 미약한 동작들을 완성하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의 검열경기과 선발경기를 통하여 평시에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김미래선수와 한조가 되어 제33차 올림픽경기대회 물에뛰어들기 여자 10m고정판 동시경기에서 2위를 쟁취하였다.

조진미는 202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4월에는 공훈체육인칭호를 받았다.

그는 1년전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올림픽금메달을 향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평



상식

여름철 음식물섭취와 건강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알맞춤한 바깥기온은 15~20℃이다.

그러나 바깥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며 더위로 해서 피곤하고 소금기와 영양분도 많이 소모되어 입맛이 떨어질수 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시원한 음식, 기력을 돋구는 음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높은 기온에 따르는 적합한 영양조식을 하여야 한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몸안에서 영양소가 완전

히 분해되지 못하면 산성물질이 생겨 피가 산성화될수 있다.

이때에는 알칼리성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제일 좋은 알칼리성식품은 남새이다. 남새로 볶음, 탕국 등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먹는것이 좋다.

탕국을 마시면 땀을 흘릴 때 몸밖으로 나가는 소금기와 비타민C를 보충할수 있으며 더위를 막고 땀을 들이는데도 좋다.

* * *



작가 김승림



연출가 임창길



TV연속극창조성원들



작품은 군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농장에 파견된 리당비서가 농장원들을 사랑과 정을 다해 이끌어주고 마음속아픔과 고민도 함께 나누며 부정과 원칙적으로 투쟁하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회극적인 웃음과 감동적인 눈물로 꾸밈없이 펼쳐보인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영은 대단하다.

《진실하다.》

《수십년전에 나온 농촌물주제의 TV연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이 최고작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작품도 그에 못지 않다. 현대판 <석개울의 새봄>이다.》

《농촌생활이 눈에 선히 안겨오고 배우들의 모든 연기형상에서 땅냄새, 흙냄새가 난다. 실지로 농촌생활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TV연속극 《백학벌의 새봄》(22부작)은 지난 4월부터 TV로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있다.

김승림이 영화문학을 쓰고 임창길, 김철우가 연출한 이 연속극은 오늘의 농촌생활을 담고있는 현실주제의 작품이다.

...

수많은 시청자들이 《백학벌의 새봄》제작집단에 축하편지와 손전화통보문을 보내왔으며 길거리에서 주역배우들을 만나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작품이 관중의 마음을 틀어잡게 된것은 첫째도 둘째도 진실하기때문이다.

우연이라고 할까. 이 작품의 작가와 연출가는 농촌출신의 창작가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농촌은 너무도 정든 고향이었다. 하여 작가와 연출가는 현지취재를 하지 않고도 농촌물주제의 작품을 어렵지 않게 엮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가와 연출가는 농장들에 대한 깊이있는 현실체험을 하면서 실지 농촌의 전변상을 꿰부로 절감하였다.

나날이 달라져 지식형근로자로 되고있는 농민들, 도시부럽지 않은 멋쟁이살림집들, 무인기가 포전우를 날며 비료를 뿌리고 과학에 철저히 의거하여 농사를 짓는 새 풍경...

깊이있는 현실체험은 진실한 형상을 낳았다.

김송림작가는 창작적흥분을 안고 5개월 남짓한 기간에 문학을 완성하였으며 지난 시기 TV연속극 《방탄벽》을 비롯하여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많이 연출한 엄창걸과 손을 잡았다.

연출가는 모든 배우들이 몇 달동안 농촌에서 현실체험을 하면서 실농군의 체모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배역을 분담하였다.

창작집단은 2023년 5월부터 황해남도 신천군의 어느 한 농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며 촬영을 진행하였다.

촬영 전 기간 연출가가 늘 강조한것은 작품의 진실성이었다.

주인공역을 맡은 문일철배우와 군당책임비서역을 맡은 리현주배우는 늘 원형인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것을 배웠고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농촌당일군들의 형상을 기를지게 창조해낼수 있었다.

관중의 인기를 끈것은 그 고

장 토배기말로 구수하게 농촌할머니역을 손색없이 형상한 인민배우 류금희였다. 지난 시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세련되고 발랄한 화술로 영화의 견인력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여러 외국영화들의 역형상도 훌륭히 맡아한 그는 목소리로만 알려진 배우였다. 그런 배우가 처음으로 화면에 등장한것으로 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또한 농촌에서의 위법현상을 조사하는 감사역을 수행한 최현배우는 최근 영화들에 출연한 신인배우이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개성적인 모습으로 처녀들속에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촬영과정에는 애로도 있었다. 그것은 영화를 찍는 사이에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변혁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 이미 촬영한 화면들은 낡은것으로 되었기때문이었다.

제작단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장에서 대본을 고쳐가면서 수차에 걸쳐 재촬영하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의 노력끝에 연속극은 근 1년반이라는 기간을 거쳐 완성되게 되었다. 엄창걸연출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수 있었는가고 묻곤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영화는 내가 만든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의 위대한 시대가 만든 영화라고 대답해주곤 합니다.》

글 엄향심
사진 김형



기량훈련에 열중하고있다.



민족의 향기

조선옷의 독특한 미 고름

이는 비율적으로 보면 1:0.8을 이루고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기하학적으로 절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양복과는 달리 옷의 룰판선을 잘 살리고 깃선, 동정선, 고름선 등이 서로 잘 조화되어 풍만하면서도 날씬한 자연미를 주고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한쌍의 고름은 우리 민족옷에서만 볼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입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세부에서도 비대칭적인 효과로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있습니다. 실례로 저고리의 왼쪽에 리봉부분으로 처리된 고름은 립체감을 나타낼뿐 아니라 오른쪽부분은 매듭으로 처리되어 비대칭적으로 된 차림새에 균형을 잡아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치마의 중심선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두가닥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데 이것은 구성에서 지루감을 해소시키면서 전반적인 옷형태에서의 미적효과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력사자료들에 의하면 삼국시기는 저고리의 고름이 짧은 끈형식이였지만 지금과 같이 자기의 고유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후반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저고리가 짧아지고 허리띠가 없어지면서 고름은 옷을 여미는 기본수단으로 되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

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부분 요소로 완성되었습니다. 고상하고 단정한것을 좋아한 우리 인민은 옷고름을 반드시 나비모양의 매듭이 되게 매는것을 관례로 삼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고름을 저고리의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처리하여 색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옷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니다.

동포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고름은 조선치마저고리의 독특한 미를 살려주는 구성요소의 하나입니다.

미풍에도 하느적거리며 날리는 고름은 조선옷의 룰동성을 부각시켜주고있을뿐 아니라 신념과 절개가 강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근면한 조선녀성들의 내면세계도 담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먼 옛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길 때면 흐르는 눈물을 옷고름으로 닦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곤 하였으며 소중한 물건을 고름에 정히 간수하기도 하였습니니다.

치마저고리차림의 녀인이 고름을 곱게 드리우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한떨기 아름다운 한송이 꽃을 보는것같습니니다.

그럼 동포여러분도 우아함과 고상함,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민족옷을 더 즐겨 입기 바랍니다.

글 연옥
사진 리철



단골손님이 많은 문흥단고기집



////////////////////////////////////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문흥단고기집으로는 삼복철의 보양음식으로 손꼽히는 단고기 음식을 맛보기 위해 손님들이 찾아오고있다.

수도에 단고기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지만 이 식당은 자기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것으로 하여 단골손님들이 특별히 많다.

모란봉구역 월향동에서 사는 김순녀(65살)는 《나는 어릴적부터 단고기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였는데 몇해전에 우리 자식의 손에 이끌려 여기에 와서 맛을 들이고는 자주 오고있답니다.》라고 말하였다.

식사실의 널찍한 두 벽면이 짝 차도록 걸려진 수십개의 상장들은 최근년간 이곳 요리사들이 단고기요리경연들에서 받은것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단고기 요리경연은 모든 참가단위들이 단고기국과 단고기내포볶음, 단고기갈비찜을 경연장에서 직접 만들어 맛과 영양학적가치를 가르는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다.

문흥단고기집의 요리사들은 매 요리들의 독특하고 고유한 맛을 잘 살리어 단연 1등을 쟁취하였다.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이곳 식당의 요리사들은 예로부터 보양음식으로 일러오고 있는 단고기음식의 진미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다.

30여년간이나 단고기음식을 전문으로 만들었다는 책임자 김진녀는 오랜 경험끝에 단고기의 피물을 깨끗이 제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물뽑기만도 3차에 걸쳐 하고 일부 부위들은 피물을 더 말끔히 제거해야 요리의 맛이 좋아진다는 비결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경험만 내세운것이 아니였다. 주방장 김연희를 비롯한 요리사들과 지혜를 합쳐 회전충격에 의한 단고기의 1차가공장치를 개발하여 도입하였으며 단고기음식의 약리

적효과가 잘 살아나도록 고기 국물과 양념장만들기, 가공시간과 온도보장 등에 특별한 품을 넣었다.

그 나날 요리사들의 단고기 요리가공수준은 높아져 누구나 우수한 요리사들로 되었으며 이곳의 단고기국은 이름난 식당 요리로, 단고기다리찜은 조선 명요리로 등록되었다.

이 식당의 모든 단고기요리들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그 모양과 빛깔이 잘 어울려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단고기국만 해도 그렇다.

김을 물물 피워올리는 우유 빛나는 쏘얀 국물이 담긴 돌솥에 담은 단고기, 국과 조화를 이루는 노르끄레한 조밥, 부루와

감자, 오이, 풋고추, 고추장, 양파, 닭알 등도 구색이 맞게 놓아주어 눈맛을 돋구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단고기기름에 고추가루, 깨, 소금, 방아풀을 잘 개여 만든 양념장과 시원한 김치도 단고기국의 맛을 더해 주고있다.

이 식당의 단고기국이 더욱 특색있는것은 국이 인차 식지 않게 보온효과를 나타내고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하는 곱돌로 만든 돌솥에 있다고도 할수 있다.

하기에 손님들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단고기음식의 맛이 참 독특하고 인상적이라고 이야기 하고있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단고기국



푸조향단고기배살찜



진채향단고기등심찜



고수향단고기갈비찜



단고기보신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참관하는 감사단 성원들



주체음악예술발전관 참관을 마치고

총련 허가이드본부 위원장 정성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결성 7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이 지난 5월 조국을 방문하였다.

뜻깊은 총련결성일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것만도 가슴벅찬데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서한도 받아안았다.

총련일군들을 애국가라고 불러주시며 마디마디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서한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그들은 모두가 눈굽을 적시였다.

몸은 멀리 이역에 살아도 마음은 항상 조국에 두고 산 동포들이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멀리 있는 동포들의 마음속고충을 다 헤아려주시였다.

감사단 성원들의 감격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와 주체음악예술

발전관, 강동종합온실농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채령군 지방공업공장 등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 깊이와 폭을 가늠할수 없는 조국의 변혁상을 체감하였다.

동포들은 산골정서가 흐르는 소나무숲에 꾸러



서한을
읽다

조동행후영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5월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강동종합온실농장을 비롯하여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야외 온천장과 실내온천장, 닭알삶는 터 등에서 온탕도 하며 온천 닭알의 별미도 맛보았는가 하면 재령군 지방공업공장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생산된 파자, 빵, 단물도 맛보았다.

감사단 단원 성상기동포는 파자를 맛보며 순수한 맛이 난다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라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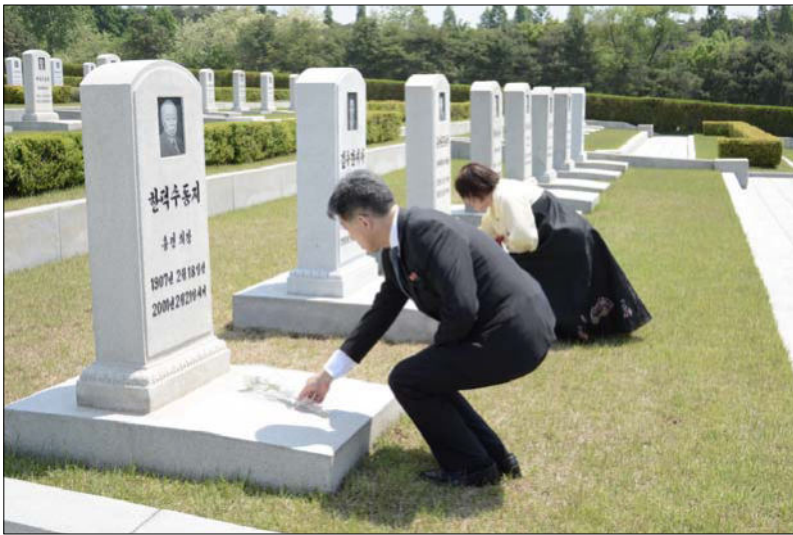
그들은 우수한 상업봉사기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동포들은 상업봉사기지의 로대에서 시내를 부감하였다.

멋진 전경에 시 한수 읊기보다는 메아리를 남기겠다며 총련 후가이드본부 위원장 정성한동포가 《아!》 하고 소리치자 그뒤를 이어 성상기동포도 《아!》 하고 목청껏 웨쳤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이 비단 정성한, 성상기동포들만이 아닌 감사단 성원들의 한결같은 심정 일 것이다.

글 김슬기
사진 총련 조선신보사 김숙미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초대위원장 한덕수동지와
렬사들의 묘에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을 참관하는 감사단 성원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옥류관에서 평양랭면도
맛보았다.



인상기

고귀한 칭호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총련 조선신보사
사장 림양호

이번에 나는 총련결성 7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방문의 나날은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0돐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결성세대의 애국정신을 이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자》라는 서한을 보내주시셨던 것이다.

서한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마디마디 정이 넘치는 그이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는다.

서한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총련일군들을 애국자중의 애국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총련일군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생의 값높은 명예로 간직하고 재일동포들을 성심다해 섬기고 받들며 그들의 복리를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뛰고 또 뛰는 진정한 복무자, 친혈육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었다.

정말 서한에서 나는 친아버지의 다심하고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었다.

나는 앞으로 총련일군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에서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동포들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가요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는 우리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사랑하는 노래이다.

1957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조국의 형편이 것처럼 어려웠던 전후복구 건설시기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랑을 감동깊이 노래한 서정가요이다.

정말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언제 한번 중단된 적이 없었다.

나도 어릴 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으며 눈물속에 이 노래를 부르며 자랐고 나의 자식들, 새세대들도 이 노래를 부르며 공부하고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멀리 있어도 언제나 조국은 곁에 있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재일동포모두의 주제곡과도 같다.

이런 노래에 조국에서 총련결성 70돐을 맞으며 인민상을 수여하였다는 것은 우리 동포들의 영광이며 자랑이다.

조국방문기간이 끝난 후 일본에 가면 동포들, 학생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총련 효고현 히메지니시
지부 위원장 서정두

민족무용발전에 심신을 바쳐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소장 박사 남수향



언제인가 해외에 있는 한 동포무용연구사는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두고 《누구나 이 도서만으로도 조선춤을 쉽게 이해할수 있을것이다.》라고 평한바 있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은 우리 민족이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창조하고 계승해온 여러 종류의 무용과 현대에 와서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춤동작들가운데서 민족적정서와 특성이 강한 춤동작들을 정립체계화한 민족무용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당대의 이름있는 예술인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던 최승희선생이 1950년대에 연구 완성한것이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은 2017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당시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

였던 남수향은 민족의 슬기가 비끼고 인간의 감정과 생활을 담은 수많은 춤가락들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기 위하여 이 사업을 발기하고 추진하였다.

홍안의 시절 아름다운 미모와 매력적인 무용률동으로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던 남수향은 후에 안무가로, 해외동포예술인들의 민족무용강사로도 활약하였다.

무용가라면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자옥을 새겨온 그는 민족무용연구의 길로 방향전환하게 되었다.

그가 민족무용연구를 결심하게 된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서 지식인가정의 네 남매중 맏딸로 태어난 수향은 어릴적부터 예술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살다가 17살에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소원대로 문학공부를 하고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을 창작하여 명성을 날렸던 4.15문학창작단 작가 남대현이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김일성상 계관인의 영예도 안겨주었다.

아버지는 5살 난 딸의 작은

어깨우에 바이올린을 올려놓았건만 수향이는 춤에 더 애착을 가지었다.

그의 남다른 예술적소양을 헤아려 나라에서는 희망대로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 입학시켜 무용을 배우도록 해주었다.

어느날 아버지는 딸에게 《작품을 훌륭히 형상하자면 매 룰동에 종자와 사상을 심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딸에게 독서과제를 주고 소감에 대해 꼭꼭 들어보곤 하였다.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버지는 자녀교양에서 매우 엄격하였는데 어린 수향이가 독서과제에 리해 안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꼭 알고넘어가도록 하였다.

남수향소장은 《나는 하루종일 무용훈련을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로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요구성에는 에너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신적성장은 물론 무용률동에도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는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그때를 회상하였다.

지난 시기 기계적으로 수행하던 매 무용동작에 그는 뜻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의 교원들과 무용전문가들은 《수향이의 춤동작을 보면 확실히 다른 학생들과는 달라. 룰동에 문학이 있거든.》라고 하면서 그의 남다른 무용가적기질에 탄복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대학교 학장을 하던 그의 할아버지 남시우선생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수향이의 춤을 보고 《무용은 누구나 다하는 재간

이 아닌데 조국에서 우리 손녀를 정말 훌륭히 키워주고있구나.》하며 기뻐하였다.

이렇게 수향은 대학시절에는 조선무용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무용을 열심히 배웠으며 졸업후에는 만수대에술단 배우로 활약하였다. 그 나날에 우리 나라 4대명작무용으로 널리 알려진 무용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사파풍년》, 《키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독무와 군무에 출연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배우시절부터 조선무용의 력사와 전통을 파고 드는것과 함께 무용예술의 과학화를 실현해보고 싶은 마음을 안고있던 남수향은 가정을 이룬 후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가 되었다.

배우생활의 경험과 독서과제에 얻은 풍부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조선무용기초동작수행원리》, 《무용예술심리학》, 《무용과 음악》, 《무용감상》, 《고전발레기본》을 비롯한 교과서와 참고서 등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조선춤의 기본뗏-건드러짐》, 《조선무용에서의 최승희의 춤체》를 비롯하여 수십건의 가치있는 론문들도 발표하였다.

박사 부교수인 그는 현재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소장의 중임을 맡고있다.

오늘도 그는 민족무용을 발전시키고 후세에 길이 전해지도록 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며 연구에 심혼을 바치고있다.

글 러해
사진 리철



남수향(왼쪽으로부터 첫번째)소장과 연구소의 연구사들



상 식

과학적인 몸단련방법

몸을 단련하는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다.

일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속에서 퇴행성변화와 여러가지 근육아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과학적인 몸단련방법으로 회복치료를 해야 한다.

우선 자기의 육체적조건과 선천적요인을 잘 연구하고 그에 적합한 운동종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운동의 강도와 시간, 훈련주기 등을 처음부터 옳게 정하여

야 한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르는 무조건적인 훈련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 육체적준비상태에 따라 해당한 운동을 할수 있는 적합한 방도를 찾는것이다.

그리고 관절과 근육단련훈련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동들은 만성질병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 * *

심원사

력사유적을 편답하는 우리의 기행길은 얼마전 황해북도 연탄군에 있는 심원사로 이어졌다.

평양시교외를 벗어나 남쪽으로 1시간나마 달리던 관광버스는 황해북도 연탄군 읍에서 약 8km정도 떨어진 곳에 다달았다. 거기서부터 구불구불한 산비탈길을 따라 몇백m가량 올라가느라니 시원하게 트인 널찍한 곳이 나졌다.

사방이 높은 산봉우리들로 둘러막혀있었는데 그곳에 조선식합각지붕을 인 고색질은 절간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이곳 주지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40대 중엽으로 보이는 주지의 말에 의하면 심원사는 자비산 천녀봉의 중턱에 자리잡고있는데 주변의 산길은 고려와 조선 봉건왕조시기에 외국사신들이 많이 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심원사를 처음 세운 년대는 명확치 않으나 중심 건물인 보광전은 1374년에 크게 고쳐짓고 그후 여러 차례 보



보광전을 돌아보고있는 관광객들



650여년 자란 느리나무아래서

수하였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해설을 들으며 산신각을 거쳐 보광전이라는 현판이 있는 큰 건물앞에 섰다.

이 절의 기본건물인 보광전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성불사의 응진전, 평안북도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옛 목조건물가운데서 년대가 가장 오래된 아니라 고려시기 건물의 우수한 특징을 잘 갖춘 뛰어난 건물이었다.

우리가 보광전의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다른 절간들과는 달리 불단에는 3개의 여래상이 있다는 주지의 웅글진 목소리가 울리였다.

벽면에는 탱화도 걸려있었다.

주지는 심원사가 깊은 산골짜기안에 들어앉은것으로 하여 다른 절간들과는 달리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보광전에는 나무로 조각하여 동도금한 완불상의 미륵보살이 진품그대로 보관되어있었으며 고려시기의 단청이 원색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이밖에도 배부른기둥과 출입문, 종, 목탁, 마루 등도 모두 그때시기의것으로서 력사유적 심원사의 품격을 살려주고있었다.

보광전의 량옆에는 중들이 거처하였다는 동료사와 서료사가 있었고 뒤에는 맑은 바람이 감도는 다락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청풍루가 있었다.

청풍루에 오른 관광객들은 놀라움에 찬 눈길로 기묘한 산세를 바라보았다.

이때 문득 한 로인이 《내가 오늘 화관을 잊고 나온것이 정말 후회되누만. 깎아지른듯한 하얀 절벽들과 소나무, 전나무등이 서있는 지장봉, 관음봉, 백운봉, 천녀봉과 같은 산봉우리들이 심원사를 감싸안고 빙 둘러서있는것이 볼수록 절경이 구만.》 하고는 손전화기를 꺼내서 주변의 경관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는 사이에 일행은 주지를 따라 산아래로 내려가고있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걸음을 다그치니 650여년 자랐다는 느리나무아래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5명의 성인이 손에손을 잡고 둘러싸도 다 안을수 없을만큼 큰 느리나무였다. 누군가가 이렇게 수백년간이나 묵은 나무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방출되기때문에 나무를 안고있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서료사



동료사



청풍루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밑등을 그려안고 농을 넘을 못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웃음속에 바라본 우리는 해월당부도, 산신제단을 돌아본 후 바위썰개로



1709년에 세운
기적비



1715년에 세운
기적비



해월당부도

흘러나오는 시원한 샘물도 달
게 마시었다.

어디 가나 민족의 유구한 력
사와 찬란한 문화가 소중히 간
직되어있는 조국산천, 그 옛날
래세의 극락을 원하며 손이 닳

도록 부처에게 빌었던 인민이
그처럼 바라던 세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있지 않는가 하
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 갈마
들었다.

누가 선창을 땀는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구
절이 한입두입 번져 자비산에
울려 퍼지었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연탄심원사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백운봉, 청학대, 청룡봉



상 식

7월의 절기와 민족

7월은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달이다.

7월의 절기들에는 소서와 대서가 있다.

소서는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뜻으로 대체로 음력
6월 상순경에 있는데 양력 7월 6~8일에 해당된다.

대서는 가장 무더운 날이라는 뜻으로 대체로 음력 6월
하순경에 있다. 양력으로 7월 22~23일에 해당된다.

올해에 소서는 7월 7일이며 대서는 7월 22일이다.

소서와 대서 무렵에는 오펙백파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농작물의 김도 부지런

히 매주면서 잘 가꾸어야 농사에서 좋은 수확을 거
둘수 있다.

7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년중 제일 무더운 계절인
삼복중에 초복과 중복이 있다. 올해 7월 20일은 초
복, 30일은 중복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삼복절
이 되면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먹었다. 삼복절의 음
식으로는 단고기국, 삼계탕, 팔죽 등을 들수 있다.
특히 단고기국은 삼복절에 우리 인민이 즐겨 먹는 특
색있는 민족음식이다. 더위로 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식욕을 돋우고 영양을 보충해 주
는 삼복절의 단고기국은 보신탕으로 널리 알려졌다.

* * *

고려 초기의 석불상 발굴



최근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리에서 고려초기의
석불상이 새로 발굴되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민족유산보호국의
연구집단이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
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이 석불상을 찾아냈다.

석불상은 불교에서 나오는 아미타여래를 형상한
것으로서 높이 171cm, 두께 26~54cm크기의 석조
물유적이다.

결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있는 여래상의 머리
는 크고 둥그스름하고 머리웃부분은 뽕뽕하게 처
리되어있다.

길죽한 코밑의 입술은 두툼하게 도드라져있고
두꺼운 밑으로 처져 거의 목부분까지 길게 늘어
져있으며 두눈을 지그시 감고있는 부처의 인상은
총적으로 근엄한감을 준다.

학자들은 부처의 두손가집새를 비롯한 여러 형
상수법을 분석하는 과정에 아미타여래상으로 확
정하였으며 주변에서 나온 기와조각들에 대한 조
사를 심화시켜 제작년대가 고려초기인 10세기초
임을 밝혀냈다.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로 잘 다듬어진 약전리
석불상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재능과 슬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글 김성경



장기수풀이 (31)

장기격언

차의 식성은 말 두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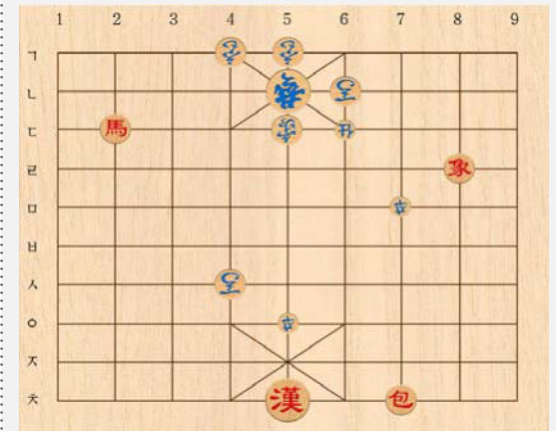
차가 피치못할 조건에서 량마를 먹고 죽는 경
우 후회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차가 장기의 전반과정에 큰 역할을 하기때문
에 항상 상대방의 경계속에 있고 그로 하여 상
대방은 차잡이에 많은 힘을 들이고있다.

따라서 이 말은 차가 상대방의 쪽과 대하는
경우 최소한 큰 쪽 두개이상을 먹어야 손해가
없음을 의미하고있다.

장기수풀이 (30)에 대한 답

ㄷ8말ㄴ6, ㄹ6차ㄴ6, ㄱ5차ㄱ4, ㄷ4궁ㄴ5,
ㄱ6차ㄱ5, ㄴ5궁ㄱ6, ㄱ6상ㄱ8, ㄴ6차ㄴ7,
ㄱ5차ㄱ6, ㄱ6궁ㄱ5, ㄱ4차ㄱ5, ㄴ4차ㄴ5,
ㄱ6차ㄱ6, ㄱ5궁ㄱ6, ㄱ5차ㄴ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고구려의 강성

B.C. 277년에 고주몽(동명왕)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로 출현한 고구려는 A.D. 668년까지 존재하면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자랑스러운 한페이지를 뚜렷이 남기었다.

근 1 000년에 달하는 력사적 기간 고구려는 강력한 봉건국가로 장성강화되어 당시 우리 나라 력사흐름을 주도하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었다.

고구려는 427년 평양천도이후에 더욱 강대한 나라로 되었다.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 평양천도는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의 전통적인 지위에 의거하여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고구려의 강렬한 지향의 발현이였다.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에 고구려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강성기에 동서 6 000리, 남북 5 000여리의 광대한 령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의 북쪽계선을 보면 서북쪽으로는 흑룡강남쪽

류역가까이에 이르고 동북쪽은 우쭈리강류역을 넘어 흑룡강하류류역일대까지 미치었다.

고구려의 서쪽계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것은 몽골의 다리강가지역에서 고구려성터와 벽화무덤이 발굴된것이다. 벽화무덤들은 성터주변에서 2기가 알려졌는데 모두 무덤칸을 둘로 쌓은 외칸돌칸흙무덤들이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산 로인들은 조상대대로 이곳에 고구려성과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숨김없이 말하였다. 그리고 몽골에서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전설에는 고구려사람들이 이 다리강가지역에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지으며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가 대흥안령산줄기 서쪽의 광활한 초원지대까지 세력권을 확대하였다는것을 증시해준다.

고구려의 강성은 령토의 넓이와 함께 인구의 증가 등에도 반영되었다.

《삼국유사》기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평양에만도 호구가 21만 508호에 달하였다고 한다. 한호당 5명으로 친다 해도 평양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것으로 된다.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있는 기간 고구려에는 남평양, 북평양, 국내, 졸본 등 임금이 거처하면 수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수도와 규모가 큰 여러 지역적거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곳들에는 평양과 같이 많은 주민이 밀집되어있었던것만큼 고구려가 인구수에 있어서 큰 나라였다는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는 강화된 자기의 국력에 토대하여 대외관계에서 대국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대내외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나갔다.

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도 고구려의 대국적지위를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어느한 나라에서는 고구려가 강성하다고 하여 고구려의 사신들을 가장 높은 급에서 우대하고 고구려의 시조왕을 제사지내는 사당을 지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들은 고구려의 힘을 빌어 적대국을 견제해보려고 그와의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기에 고구려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당당한 황제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국이라는 긍지와 함께 자기 나라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지향을 담아 대고구려라고 긍지높이 불렀던것이다.

고구려의 강성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랑과 긍지를 안겨주고있으며 그로 하여 고구려는 그 이름도 자랑높은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민족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설경



높은 청혈작용으로 지구유해과와 린중독, 지자기현상으로 인한 각종 이상증상들을 제거하고 강장작용이 뚜렷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약돌치료기구 청혈팔찌.

먼적외선치료와 고려약불임료법을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이 치료기구는 신비한 효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청혈팔찌의 핵심부인 약돌에는 13가지 고려약 초정액과 천연나노금, 검은소금, 양기석, 초고순 도전기석분말과 초미분한 금강약돌분말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